



## 가. 관찰질문

- 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10절)?
- 2) 성도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11절)?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12절)?
- 3)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 나. 나눔질문

- 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져야 합니다(10절). 당신은 주 안에서 강건해 지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2) 성도가 맞서야 될 진정한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입니다(12절). 당신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적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 3)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테나이” 인데 11절에는 같은 단어가 “대적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졌습니다. 즉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이 빈틈없이 대오를 이루어 적의 공격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때 병사 하나라도 쉬겠다고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a weakest

link”악한 고리가 생겨 결국 적진에 뚫리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강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약한 성도입니까?

## 다. 적용질문

- 1) 부활의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를 현재명령형 수동태로 사용했습니다. 내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부활의 능력을 입기 위해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2)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한 영적싸움의 무기는 기도와 사랑입니다. 특별히 악한 영을 대적해 싸우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선의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늘 영적인 전쟁 앞에 살아가는 당신의 기도생활은 어떠합니까?
- 3) 교회 안에는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일원 한명, 한 명이 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